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노동조합 소식지
올타리

2020년
12월 9일 (수)

발행처 :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발행인 : 김용일 전화 : 02-6977-6503 팩스 : 0505-085-6503

※ "올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올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조위원장 김용일입니다.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교섭 및 제도변경 잠정합의(안)"을 지난주 금요일 조합원 동지들께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렸고 전일 찬반투표를 통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생각을 여쭙었습니다. 그 결과 93.72%의 투표율과 71.99%의 찬성율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지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에 따른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 4월 6일 노동조합이 출범하고 노동조합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임·단협 및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은 합병 이후 양사의 서로 다른 임금체계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교섭은 기 공지된 대로 우리 회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직군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섭에 임했습니다. OA직군 처우개선, CS상담직 처우개선, (舊)부부장 수석매니저의 처우개선 등이었습니다.

찬성율 71.99%는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묵시적으로 찬성을 던지던 때와는 달리 우리 조합원들의 한층 더 성숙한 기대와 더불어 회사에 요구하는 바가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반대표를 행사하신 약 700여명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노동조합이 더 집중해야 할 부분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직군전환에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부분과 더불어 직군전환의 확대 없이 해결 할 수 없는 OA 직군의 처우개선 문제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첫 제도변경이 조직 내에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CS상담직은 조합원들께서 더 나은 처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에 상응하지 못했던 결과물이라는 반응을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임금. 투명하지 못했던 제도를 벗어나고 신설된 직급단계 제도를 통해 누가 봐도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직급내의 승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과 조정률 확대에 따른 수많은 조합원들의 지적 및 우려사항 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철저한 DATA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단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고과 이의제기에 따른 조합원의 고충 상담이 발생된 경우에는 주저 없이 조합에 연락주시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긴 시간 어렵고 힘들게 진행해 온 교섭결과물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인해 소외되는 조합원 동지들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한 임원 인사에 이 모든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분들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승진이 본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신 조합원들의 승진인사 확대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교섭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한 모든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12. 09.

노조위원장 김용일 드림